

국내경기는 업계·지역으로 양극화 경향이 선명

~ 개인소비관련이 저조해도, 인바운드확대 등으로 「료칸·호텔」은 과거 최고 ~

(조사대상 2만 6,972사, 유효회답 1만 1,396사, 회답률 42.3%,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3년 11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44.8로 2개월 연속으로 개선하였다. 국내경기는 개인소비 관련이 저조하였지만, 인바운드 수요와 활발한 공공 공사의 뒷받침으로 소폭이지만 개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와 지역에서 양극화 경향이 선명해졌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임금 동향에 주시하면서도, 설비투자와 인바운드 수요확대에 의해 보합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건조한 자동차 관련과 인바운드를 시작으로 한 관광수요가 뒷받침하여, 10개 업계 중 4개 업계, 51개 업종 중 30개 업종에서 개선되었다.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개선, 5개 지역이 악화하였다. 건조한 자동차 생산과 신차 발매 등이 끌어올린 한편, 공공 사업 증가도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였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중소기업」이 2개월 연속으로 개선, 「소규모기업」은 2개월만에 악화하였다.
- 관광 DI는 48.1로 9개월 연속으로 전 산업의 경기 DI를 상회하였다. 특히 「숙박서비스」와 「여객수송서비스/수송설비렌탈서비스」는 과거최고를 갱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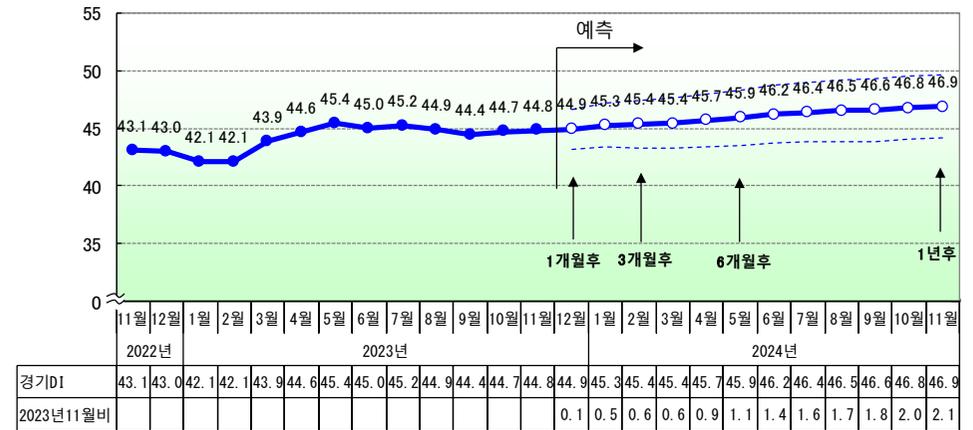
< 2023년 11월의 동향 : 소폭 개선이 계속 >

2023년 11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44.8로, 2개월 연속으로 개선하였다. 국내경기는 개인소비 관련이 저조하였지만, 인바운드의 수요와 활발한 공공 공사의 뒷받침으로 소폭이지만 개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와 지역에서 양극화 경향이 선명해졌다.

11월은 엔저(円低) 경향이 한풀 꺾임과 닛케이 지수가 일시 버블 붕괴 후의 최고치 갱신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적으로 추이한 가운데, 대형 공공 공사를 포함한 건설 수요의 성황이 폭넓은 업종으로 파급하였다. 또한, 자동차생산이 견조하였고, 인바운드 등에 의한 숙박수요는 국내 경기를 뒷받침하였다. 한편, 인력부족은 계속해서 반수 이상의 기업에서 보여지는 등 중·소규모기업의 약한 개인소비 관련은 체감경기의 하락요인이 되었다.

< 향후의 전망 : 보합으로 추이 >

향후는 설비투자와 인바운드 수요의 한 층 확대가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개인소비의 행방이 포커스가 될 것이다. 개인소비는 잇따른 임금인상으로 수입 증가가 기대되지만, 높아지는 절약지향에 대해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까가 관건이 될 것이다. 또 GX 추진과 기업의 업적개선, 경제대책 실시 등도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인건비 증가와 인력부족의 장기화, 2024년 문제 등은 악재이다. 중동과 동아시아 정세 전망,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경제 움직임도 주시해야 할 것이다. 향후의 국내경기는 임금 동향에 주시하면서도, 설비투자와 인바운드 수요확대에 의해 보합으로 추이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별 : 4개 업계 30개 업종이 개선, 자동차 관련과 숙박수요가 경기를 뒷받침

· 견조한 자동차 관련과 숙박수요가 뒷받침하여, 4개 업계 30개 업종에서 개선하였다. 게다가, 전국 각지에서 건설수요가 상승하면서 폭넓은 업종에도 파급되었다. 한편, 인력부족과 매입가의 고공행진 등 구조적인 약재는 하락 요인으로, 업계 간에 체감경기에 불균형이 보여진다.

· **『제조』 (41.6)...**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자동차와 반도체 관련이 순조롭다는 목소리가 있는 「전기기계제조」(동 0.7포인트 증가)는 5개월 만에 개선하였다. 「화학품제조」(동1.3포인트 증가)는 「계절 상품인 종합감기약 등이 잘 팔림」(의약품제조)등의 목소리도 있으며 2개월 연속 상승하였다. 외식 기회의 증가 등 「음식료품·사료제조」(동 0.6포인트 증가)도 2개월 연속 개선하였다. 한편 자재가격 급등과 중국경제 감퇴를 영향으로 드는 목소리 외, 업계 전체가 어렵다라는 의견도 조금씩 보이는 「기계제조」(동 0.2포인트감소)는 4개월 연속으로 하락, 전년 동월 대비로는 5포인트 이상 대폭 악화되었다.

· **『건설』 (47.8)...**동 0.3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민간, 공공 모두 건설공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들리는 한편, 「TSMC버블」(전기통신공사)이나 「인바운드, 호쿠리쿠 신칸센 개통을 위해 물건이 나와있다」(내장 공사)와 같은 지역 특유의 상승 요인도 나타났다. 게다가 인력부족감이 커지면서 수주단가가 상승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전해졌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생긴 전문가 부족과 재료 급등 등 구조적인 마이너스 요인으로 나타나며, 시간외 노동에 대한 상한이 규제되는 2024년 문제로의 대응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 **『서비스』 (50.8)...**동 보합. 「어린이 감소와 종업원 확보에 따른 임금이 급등」(개인교습소)이라는 목소리가 있는 「교육서비스」(동 3.0포인트 감소)는 2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정보서비스」(동 0.6포인트 감소)는 「인보이스 대응·전자장부보호법 대응이 일단락되어 약간 안전에 공백 기간이 생겼다」(소프트위탁개발)등의 목소리가 들리며 2개월만에 악화하였다. 한편 호호인 인바운드 수요와 함께 비즈니스로의 숙박수요가 호재인 「료칸·호텔」(동 4.6포인트 증가)은 3개월 연속으로 개선, 7개월 만에 60대에 달하는 과거최고를 갱신하였다. 「호텔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청소 업무가 증가」(빌딩 메인テナンス)와 같이 「메인テナンス·경비·검사」(동 2.2포인트 증가)는 2개월만에 개선되었다.

· **『소매』 (41.2)...**동 0.7포인트 감소.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매장 점수의 감소 등 절약지향의 고조를 위구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음식료품소매」(동 0.6포인트 감소)와 「각종상품소매」(동 1.0포인트 감소)는 모두 3개월 연속으로 악화하였다. 「추워지는 시기가 늦어진 탓인지 겨울용 상품의 움직임이 둔하다」(남성복소매)라고 하는 것처럼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동 3.4포인트 감소)는 2개월 만에 하락하였다. 한편 인플루엔자 유행 등 계절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의약품·일용잡화소매」(동 0.9포인트 증가)는 2개월 연속으로 개선하였다.

		22년 11월	12월	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농·임·수산		37.7	37.9	37.4	38.9	41.6	42.2	44.8	46.7	42.5	43.0	42.1	43.0	40.1	▲ 2.9
음용		44.5	44.3	44.8	43.3	44.0	45.0	47.8	48.1	47.4	48.8	46.8	47.3	48.0	0.7
건설		44.9	44.6	44.1	43.7	45.5	45.5	46.9	46.8	47.8	47.4	47.1	47.5	47.8	0.3
부동산		45.6	44.8	46.1	46.3	47.5	49.6	50.7	50.3	48.8	49.6	48.5	48.7	47.9	▲ 0.8
제조	음식료품·사료제조	38.8	38.3	38.1	37.0	41.1	42.0	43.7	43.6	43.1	44.5	42.6	43.4	44.0	0.6
	섬유·섬유제품·장신구제조	36.5	37.9	37.7	39.0	38.6	41.0	42.1	42.0	43.6	42.6	43.0	41.5	40.8	▲ 0.7
	전계·가구·요업·토석제품제조	41.9	41.0	38.0	37.6	37.0	39.7	39.0	38.4	37.9	38.2	39.0	40.3	41.5	1.2
	펄프·종이·종이공업제조	40.2	39.2	39.8	36.6	38.6	37.6	38.6	35.8	36.1	36.1	36.9	37.7	37.2	▲ 0.5
	출판·인쇄	32.9	32.4	31.7	31.6	34.3	33.9	35.4	33.9	33.4	33.9	32.3	32.5	33.1	0.6
	화학품제조	40.8	41.5	40.3	39.2	40.1	41.0	40.6	41.6	41.8	41.2	41.2	41.4	42.7	1.3
	철강·비철·광업	43.6	43.1	41.7	41.0	41.9	41.1	40.9	40.4	40.7	39.9	39.8	41.5	41.9	0.4
	기계제조	45.9	44.9	43.3	43.7	43.4	43.8	42.9	41.9	42.9	42.8	41.2	40.7	40.5	▲ 0.2
	전기기계제조	45.4	44.5	43.3	43.2	42.8	43.2	43.1	43.9	42.9	42.8	42.4	42.3	43.0	0.7
	수송용기계·기구제조	42.1	41.0	38.7	39.6	41.2	41.5	43.0	44.6	46.2	46.2	48.3	46.9	47.2	0.3
	정밀기계·의료기계·기구제조	46.1	46.3	46.5	49.0	46.8	45.6	46.2	46.8	45.4	42.9	44.2	42.9	43.4	0.5
	기타제조	35.9	37.0	39.1	36.1	40.8	41.9	42.7	42.3	43.8	40.3	40.5	39.4	40.7	1.3
	전 체	41.9	41.5	40.4	40.0	41.0	41.4	41.5	41.3	41.5	41.2	40.8	41.1	41.6	0.5
도매	음식료품도매	38.8	38.2	37.5	38.3	42.1	44.3	45.2	44.9	46.4	47.1	45.8	43.3	44.5	1.2
	섬유·섬유제품·장신구도매	33.1	34.0	34.7	35.9	38.0	41.9	43.1	39.5	38.0	38.1	36.1	36.0	▲ 0.1	
	전계·가구·요업·토석제품도매	39.5	40.2	38.3	37.2	38.0	39.1	38.4	37.3	38.4	38.0	38.1	38.0	38.3	0.3
	종이·문구·서적도매	37.0	33.8	34.8	35.6	37.3	37.9	40.3	36.5	38.2	38.6	38.5	38.4	40.1	1.7
	화학품도매	43.8	43.5	42.8	41.7	43.5	44.9	46.8	45.3	45.2	45.1	44.5	44.9	45.1	0.2
	계생자원도매	43.5	46.2	43.3	43.2	41.7	43.5	40.4	38.9	42.2	40.9	43.9	45.2	42.4	▲ 2.8
	철강·비철·광업도매	40.2	39.9	38.5	37.1	37.8	37.9	38.1	37.5	37.9	34.7	36.7	37.0	38.1	1.1
	기계·기구도매	44.1	43.8	43.0	43.3	45.2	45.2	46.0	45.4	45.3	44.7	43.8	43.9	44.1	0.2
	기타도매	39.6	40.9	40.0	40.9	42.3	43.9	44.9	43.2	42.6	42.7	41.7	43.1	43.2	0.1
	전 체	41.0	41.0	40.1	40.1	41.9	42.9	43.7	42.5	42.9	42.3	41.9	41.7	42.1	0.4
소매	음식료품소매	43.2	42.2	42.3	40.6	42.7	49.1	49.7	46.6	46.2	47.8	46.5	45.5	44.9	▲ 0.6
	섬유·섬유제품·장신구소매	38.1	35.4	34.2	35.7	39.7	36.6	38.3	40.4	41.4	41.2	36.6	42.7	39.3	▲ 3.4
	의약품·일용잡화소매	40.6	39.0	37.2	38.5	42.9	47.8	47.4	45.9	45.3	42.6	42.5	43.8	44.7	0.9
	가구류소매	36.2	31.0	34.2	33.3	39.5	38.1	34.7	33.3	32.5	32.0	36.3	27.2	32.4	5.2
	가전·정보기기소매	35.3	37.2	36.3	37.5	40.2	37.8	40.5	38.6	41.3	40.2	42.7	42.5	44.0	1.5
	자동차·동부품소매	37.2	35.3	38.2	38.7	40.8	44.0	41.5	40.6	40.9	42.0	41.7	42.4	40.2	▲ 2.2
	전문상품소매	35.4	34.8	34.4	35.3	38.6	39.0	39.4	40.1	38.8	38.7	39.1	39.4	38.1	▲ 1.3
	각종상품소매	41.4	42.6	42.5	41.0	43.6	47.8	45.8	44.9	48.1	48.5	45.9	45.3	44.3	▲ 1.0
	기타소매	44.9	41.1	42.3	44.8	41.1	41.7	41.1	45.8	46.2	42.2	47.6	46.2	47.2	1.0
	전 체	38.2	37.4	37.5	37.7	40.6	42.5	42.4	42.0	41.9	41.8	41.4	41.9	41.2	▲ 0.7
운수·창고	41.6	41.6	38.9	38.0	41.2	42.1	43.4	42.2	43.5	43.3	42.8	44.1	43.8	▲ 0.3	
서비스	음식점	39.1	41.5	38.5	42.4	49.8	50.8	56.7	53.6	55.6	52.2	51.8	47.4	49.4	2.0
	전기통신	50.0	48.3	47.6	44.4	52.8	52.8	58.3	53.3	60.4	54.8	57.4	59.5	57.1	▲ 2.4
	전기·가스·수도·열공급	32.3	36.7	32.4	32.1	39.7	38.9	44.0	44.1	44.8	43.5	46.3	44.1	50.0	5.9
	리스·임대	48.4	47.4	46.8	47.4	48.1	50.5	49.7	52.1	49.8	49.0	49.2	52.5	52.9	0.4
	도판·호텔	54.8	52.2	48.3	48.0	59.5	62.1	59.8	55.1	56.6	55.5	57.6	59.7	64.3	4.6
	오락서비스	43.8	43.2	42.1	44.1	50.9	48.9	50.4	47.6	49.3	48.8	46.2	46.3	44.8	▲ 1.5
	방송	41.7	39.5	40.7	41.1	42.6	44.7	47.4	43.1	44.7	46.1	45.6	42.6	45.6	3.0
	메인テナンス·경비·검사	43.6	45.6	42.9	42.6	45.3	45.8	47.3	48.0	48.4	47.4	47.8	46.8	49.0	2.2
	광고관련	40.3	39.7	40.2	41.4	43.7	46.6	45.0	45.0	44.8	45.2	45.4	45.2	45.6	0.4
	정보서비스	53.0	53.6	53.2	53.8	55.5	55.8	56.2	56.8	57.0	56.4	55.5	56.0	55.4	▲ 0.6
	인재취득·소개	46.5	50.0	48.5	47.9	47.3	49.6	50.7	52.0	52.0	50.9	48.9	50.9	52.3	1.4
	전문서비스	48.8	48.7	48.5	49.2	50.1	50.9	52.3	51.7	52.2	51.3	51.2	52.0	51.1	▲ 0.9
	의료·복지·보건위생	43.6	42.8	42.9	41.5	42.2	41.8	44.6	44.8	44.2	43.4	42.4	43.6	41.8	▲ 1.8
	교육서비스	42.8	41.2	38.4	41.9	44.4	38.4	42.2	41.4	40.7	43.8	46.4	45.6	42.6	▲ 3.0
	기타서비스	43.5	44.0	42.2	44.3	46.5	48.6	47.5	49.2	48.2	47.9	47.2	47.6	47.2	▲ 0.4
전 체	47.3	47.7	46.6	47.4	50.0	50.8	51.6	51.6	51.7	50.8	50.4	50.8	50.8	0.0	
기타	38.2	36.7	36.5	37.0	38.2	39.2	41.2	39.8	40.9	40.8	39.2	40.1	38.2	▲ 1.9	
격차 (10개 업계별 『기타』 제외)	9.6	10.3	9.2	9.7	9.4	9.4	10.1	10.3	10.2	9.6	9.6	9.7	10.7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규모별 : 「대기업」이 견인, 중·소규모기업은 개인소비 관련이 저조

- 「대기업」 「중소기업」이 2개월 연속 개선하였지만, 「소규모기업」은 2개월 만에 악화되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이 견인한 가운데, 중·소규모기업은 개인소비 관련이 저조하였다.
- 「대기업」(48.4)…전월 대비 0.5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으로 개선, 8개 업계에서 상향하여 국내 경기의 상승 요인이 되었다. 대기업 자동차 메이커의 생산이 호조였던 한편, 방재·감재 대책 등의 대형 공공 공사와 계속되는 인바운드 수요도 플러스로 작용하였다.
- 「중소기업」(44.2)…동 0.1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파자·빵과 식육도매를 포함한 『도매』가 4개월 만에 상향하였다. 한편으로 『소매』는 「소비의욕이 느껴지지 않는다.」「지갑이 열리지 않는다」 등의 목소리가 들려,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 「소규모기업」(43.1)…동 0.3포인트 감소. 2개월만에 악화되었다. 「코로나로 멀어진 고객」이 돌아오지 않는다. 특히 연회는 인수가 감소하고, 규모도 축소(일본요리점) 등, 음식점의 체감경기가 크게 악화되었다. 『소매』 『서비스』의 침체가 눈에 띄는 등, 개인소비 관련이 저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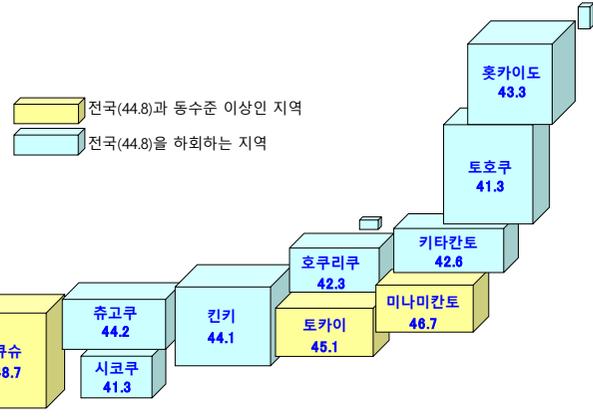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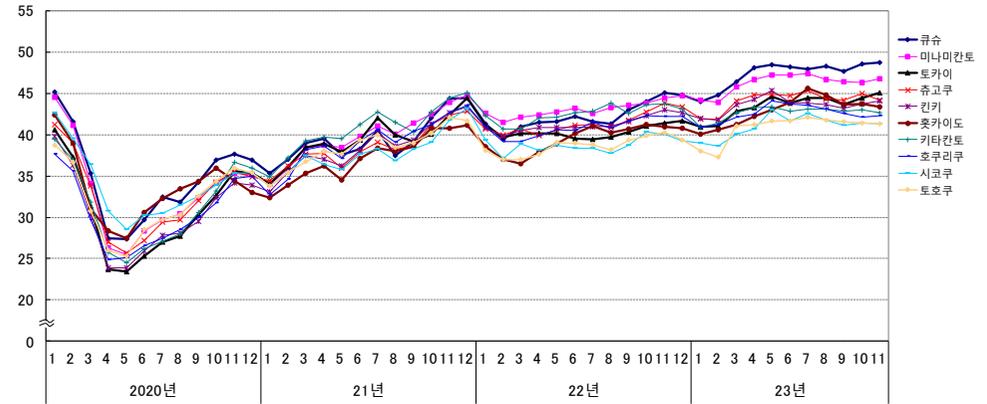
	22년 11월	12월	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대기업	45.0	44.8	44.8	44.2	46.1	47.3	48.1	47.7	48.6	48.0	47.8	47.9	48.4	0.5
중소기업	42.7	42.6	41.6	41.7	43.5	44.2	44.9	44.5	44.6	44.3	43.8	44.1	44.2	0.1
(그중 소규모기업)	41.4	41.3	40.4	40.9	42.4	42.9	43.9	43.6	43.4	43.5	43.0	43.4	43.1	▲ 0.3
격차(대기업 - 중소기업)	2.3	2.2	3.2	2.5	2.6	3.1	3.2	3.2	4.0	3.7	4.0	3.8	4.2	

*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지역별 : 10개 지역 중 5개 지역에서 개선, 공공 공사가 뒷받침 되어도 양극화 경향

- 『미나미칸토』 『토카이』 등 10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개선, 『토호쿠』 등 5개 지역이 악화하였다. 도도부현(都道府県) 별로는 24개 도부현(都府県)이 개선, 22개 도부현이 악화하였다. 견조한 자동차 생산과 신차 판매 등이 상승한 것 외, 공공 사업 증가도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였다.
- 『미나미칸토』(46.7)…전월 대비 0.4포인트 증가. 4개월만에 개선되었다. 「도쿄(東京)」가 4개월 만, 「치바(千葉)」 「카나자와(神奈川)」가 2개월 만에 개선하였다. 호조인 신차 판매 등 『소매』가 상향한 한편, 민간수요·공공수요 모두가 증가하고 있는 『건설』은 3년 9개월 만에 경기 DI가 50을 상회하였다.
- 『토카이』(45.1)…동 0.7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으로 개선되었다. 지역 내 4개현(県) 중 「미에(三重)」 「아이치(愛知)」 「시즈오카(静岡)」 3개 현이 상향하였다. 자동차 생산이 견조로, 국내와 수출용의 화물 이동이 활발하였다. 또 관광과 비즈니스 고객의 확대로 「료칸·호텔」이 4개월 만에 50대로 복귀하였다.
- 『토호쿠』(41.3)…동 0.1포인트 감소. 4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지역 내 6개 현 중 「아오모리(青森)」 「이와테(岩手)」 「아키타(秋田)」가 하락하였다. 비료와 연료 가격의 고공행진에 의한 악영향으로 『농·임·수산』이 크게 악화된 한편, 가격 상승에 의한 판매량 감소 등 『도매』 악화도 하락 요인이었다.

지역별 그래프(2020년 1월부터의 월별 추이)



	22년 11월	12월	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홋카이도	40.9	40.8	40.1	40.6	41.2	42.2	43.0	43.9	45.6	44.8	43.6	43.7	43.3	▲ 0.4
도호쿠	40.3	39.4	38.0	37.2	41.1	41.2	41.6	41.7	42.1	41.8	41.5	41.4	41.3	▲ 0.1
키타칸토	43.7	43.1	40.9	41.4	42.6	43.3	43.4	42.8	43.1	43.1	42.9	43.0	42.6	▲ 0.4
미나미칸토	44.4	44.7	44.1	43.9	45.7	46.7	47.2	47.2	47.4	46.6	46.4	46.3	46.7	0.4
호쿠리쿠	42.2	42.2	40.9	41.2	42.1	42.5	44.0	43.7	43.6	43.1	42.5	42.1	42.3	0.2
토카이	41.4	41.7	41.0	41.1	42.8	43.3	44.6	43.8	44.4	44.4	43.6	44.4	45.1	0.7
킨키	43.0	42.7	42.0	41.8	43.6	44.3	45.4	43.9	43.8	43.6	43.2	43.7	44.1	0.4
츄고쿠	43.8	43.4	41.9	41.8	44.1	44.8	44.9	44.7	45.3	44.3	44.1	44.9	44.2	▲ 0.7
시코쿠	40.0	39.3	39.0	38.6	40.0	40.7	43.0	41.7	42.6	41.8	41.2	41.4	41.3	▲ 0.1
큐슈	45.1	44.8	44.0	44.8	46.4	48.1	48.5	48.2	48.0	48.3	47.7	48.6	48.7	0.1
격차	5.1	5.5	6.1	7.6	6.4	7.4	6.9	6.5	5.9	6.5	6.5	7.2	7.4	

*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